

## ‘나누다’를 語根으로 한 同源字 考

李鏡淑\*

### <目次>

- I. 서론
- II. ‘나누다’를 語根으로 한 同源字
  - 1. 本義
  - 2. 引伸義
  - 3. 反訓義
  - 4. 本義, 引伸義 兼 反訓義
- III. 결론

###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反訓義 글자도 적극적으로 同源字 범위에 넣고 ‘分’字와 ‘分’字 聲符字를 제외한 ‘나누다’를 語根으로 하는 ‘分’字 同源字를 분석하였다.

그 의미를 보니, ‘나누다’가 語根이기 때문에 本義는 ‘分’字와 마찬가지로 ‘나누다’, ‘다르다’이다. 引伸義는 ‘구별하다’, ‘빛나다’, ‘내뿜다’, ‘불태우다’이다. 反訓義는 ‘얼룩얼룩하다’, ‘크다’, ‘높다’이다. 反訓義를 비롯한 本義와 引伸義를 겸하여 가진 상황을 보면 ‘나누다’, ‘모이다’, ‘뭉다’ 등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고, ‘나누다’와 ‘오락가락하다’, ‘꾸미다’와 ‘꾸미지 않다’ 등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同源字에 대하여 本義, 引伸義, 反訓義를 함께 분석하면 단지 同源字의 공통된 의미만을 系聯했을 때보다 좀 더 많은 글자 정보와 의미들

\* 공주대학교 강사 / jing20000219@hanmail.net

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글자들의 의미 연결을 좀 더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다. 앞으로 한자의 字形, 字義, 字음을 연구할 때, 同源字 연구에 反訓義를 같이 종합하여 연구한 후 정리하면 同源字의 연구를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자의 의미를 폭 넓게 알 수 있으며, 문헌 연구의 訓詁 方面에도 훌륭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나누다, 동원, 본의, 인신의, 반훈의.

## I. 서론

일반적으로 同源字라고 하면 그 단어의 근원이 같아서 음이 같거나 비슷하고 의미가 서로 통하는 글자들을 말한다.

동원의 단어들은 하나의 근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문자가 생겨나기 전의 언어는 무슨 상태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초의 근원은 알 방법이 없다. 단지 문자가 다량으로 만들어 진 후에 몇 몇의 단어들을 보고 동원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파악하는 과정에서 문자의 의미와 소리를 근거로 근원의 단어와 그 근원에서 파생된 단어들을 수집하는 系聯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완벽하게 모든 동일한 근원의 단어들을 다 수집할 수는 없어서 동일한 단어의 뿌리를 완벽하게 재현하여 낼 수도 없고, 모든 同源字들을 전부 系聯하여 내는 것도 불가능하다.<sup>1)</sup>

본고에서는 ‘分’字의 本義, 引伸義, 反訓義와 ‘分’字 聲符 同源字의 本義, 引伸義, 反訓義 등을 바탕으로<sup>2)</sup> ‘分’字 聲符를 제외한 ‘分’字 同源字

1) 王寧, 『古代漢語』, 北京出版社, 2002, p.119.

2)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논할 대상은 ‘分’字의 同源字 중에서, ‘分’을 聲符로 하지 않는 同源字들의 本義, 引伸義, 反訓義이다. 원고 편쪽의 한계로 인하여, ‘分’字 및 ‘分’字 同聲符 同源字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따로 논문을 작성하는

들을 『同源字典』<sup>3)</sup>, 『同源字典補』<sup>4)</sup>, 『同源字典再補』<sup>5)</sup>, 『古漢語反訓集釋』<sup>6)</sup> 등에 수록되어 있는 同源字와 反訓義까지 참고하여 수집한 후 그 글자들의 의미와 용도를 분석하겠다.

우선 ‘分’字 字形에 대한 소개를 하고 ‘分’字의 本義, 引伸義, 反訓義, ‘分’字와 同源字 관계인 ‘分’字 聲符 同源字의 本義, 引伸義, 反訓義를 간략하게 소개하겠다.<sup>7)</sup> ‘分’의 甲骨文 字形을 보면, ‘八’과 ‘刀’로 이루어진 𠂔 모양의 회의자이다. ‘八’은 ‘둘로 나누어진’모양이다. ‘刀’는 ‘칼’을 형용한 모양이다. 이 둘이 합하여져 ‘칼로 베어 나누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졌다. ‘分’의 기본적인 本義는 ‘나누다’이고, 거기에 ‘다르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된다. ‘分’의 引伸義는 ‘나누어서 분명하고 명확하다’, ‘다른 것을 분별해 내다’, ‘나누어 주다’, ‘반쪽, 전체의 반’, ‘일부분’, ‘춘분’, ‘경계’, ‘분수’, ‘직분’, ‘몫’, ‘정분’, ‘도량형의 단위’ 등이다. ‘分’의 反訓義는 本義나 引伸義인 ‘나누다’, ‘일부분’등의 의미와 정반대되는 의미이다.<sup>8)</sup> ‘두루, 모두’라는 의미, 모두 ‘만족하다, 기꺼이’, 모두 만족하여 기꺼이 따르는 ‘원리, 원칙’, ‘예상하다’ 등 의미로 분석되었다.

‘分’字 聲符 同源字의 本義, 引伸義, 反訓義 글자들을 소개하겠다. 本義와 의미가 통하는 글자인 ‘나누다’ 의미의 ‘攷’가 있다. 引伸義에 해당되는 글자는 비교적 가까운 의미끼리 묶어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

---

것으로 하고, 본고에서는 그 결과를 인용하도록 하겠다. 본고 “‘分’字의 異聲符 同源字에 대한 小考”와 “‘分’字의 同聲符 同源字에 대한 小考”와 소논문 “‘分’字 同聲符의 同源과 反訓에 대한 小考”는 같이 연계된 논문임을 밝힌다.

- 3) 王力, 『同源字典』, 商務印書館, 1997.
- 4) 劉鈞傑, 『同源字典補』, 商務印書館, 1999.
- 5) 劉鈞傑, 『同源字典再補』, 語文出版社, 1999.
- 6) 徐世榮, 『古漢語反訓集釋』, 安徽教育出版社, 1985.
- 7) 본고의 이해를 돕고 위하여 줄저 「‘分’字와 ‘分’聲符字의 字義의 확장으로 본 反訓義」를 참고하여 ‘分’字 및 ‘分’聲符 글자의 의미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 본문에서는 ‘分’字와 ‘分’聲符 이외의 ‘나누다’를 어근으로 하는 同源字를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8) 徐世榮, 『古漢語反訓集釋』, 安徽教育出版社, 1985, p.193.

다. 첫 번째, 갈림길, 경계가 분명하다, 예쁘다, 옷에 수를 놓다(‘岔’, ‘盼’, ‘盼’), 두 번째, 빛나다, 내뿜다(‘盼’, ‘那’, ‘芬’, ‘茈’, ‘榜’, ‘妨’, ‘粉’), 세 번째, 기가 성하다, 용솟다, 불이 일어나다(‘蓋’, ‘濫’, ‘爨’), 네 번째, 명령하다, 큰 소리, 꾸짖다(‘吩’, ‘砒’, ‘汾’, ‘忿’, ‘粉’)등이다. 反訓義 글자는 ‘分’字의 경우, ‘나누다’, ‘경계가 분명하다’라는 의미에서 역방향의 의미인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나누어 있지 않은 ‘아우르다’, ‘뒤섞이다’, ‘모이다’, ‘크다’라는 反訓義를 가진 同源字가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아우르다, 거두다, 모이다(‘扮’, ‘粉’, ‘舂’, ‘盆’), 두 번째, 섞여 있다, 어지럽다, 느리다.(‘紛’, ‘棼’, ‘紛’, ‘粉’)등이다. 反訓義를 가진 글자 중에서 本義나 引伸義를 곁하여 가진 글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나누다, 어지럽다.(‘霧’, ‘氛’, ‘鶻’, ‘粉’), 두 번째, 나누다, 모이다, 크다(‘粉’, ‘盼’, ‘盆’, ‘扮’, ‘份’, ‘頒’) 등이다.

그렇다면 ‘分’字와 聲符가 다르면서 ‘다르다’를 어근으로 하는 ‘分’字 同源字들의 本義, 引伸義, 反訓義의 상황은 어떠한지 글자들을 분석하여 ‘分’字의 本義, 引伸義, 反訓義, ‘分’字 聲符 同源字의 本義, 引伸義, 反訓義와 함께 의미들을 정리하겠다.

이와 같이 同源字의 기본 의미뿐만 아니라, 引伸義와 그 反訓義까지 분석하여 정리하면, 의미 변화의 방향을 바탕으로 글자의 뜻을 명확히 하여 문헌 해석에 도움이 되고, ‘分’字 同源字를 系聯할 때 의미의 단계별 확장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이 논문은 참고가 될 것이다.

## II. ‘나누다’를 語根으로 한 同源字

### 1. 本義

#### 1) 나누다.

‘分’字와 ‘分’ 聲符 同源字를 제외하고, ‘나누다’를 어근으로 하는 同源

字들 중에서 ‘分’의 本義인 ‘나누다’, ‘분별하다’와 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들의 의미와 용도를 분석하고 그들의 上古音을 알아보겠다.

(1) 皮<sup>9)</sup>

① 上古音: 並紐歌部

② 字源

『集韻』: “반절은 포미절이다. 음은 피이다(蒲糜切, 音疲.)”

『說文』: “짐승의 가죽을 벗겨낸 것을 피라고 한다. 又의 뜻을 따르고, 소리 자형을 爲의 생략형이다.(剝取獸革者, 謂之皮。从又, 爲省聲。)”

『正韻』: “호학으로 만든 가죽 옷을 피라고 한다.(狐貉之裘曰皮也。)”

『釋名』: “덮는 것이다. 피는 몸을 덮는 것이다.(被也。被, 覆體也。)”

『史記·酈生傳』: “죽하께서 표면적인 현상만을 보시니 천하의 선비를 잃을까 두렵습니다.(足下以目皮相, 恐失天下士。)”

『書·禹貢』: “양주는 그 공물이 곰, 큰 곰, 여우, 이리, 샅의 털로 짠 모직과 가죽이다.(梁州, 厥貢熊羆狐狸織皮。)”

『莊子·讓王篇』: “겨울에 가죽 털옷을 입는다.(冬日衣皮毛。)”

‘皮’는 ‘가죽 피’로 『說文』 “剝取獸革者, 謂之皮。从又, 爲省聲。”의 설명에서 보듯이 ‘皮’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낸 것을 말하는데, 『書·禹貢』 “梁州, 厥貢熊羆狐狸織皮。”의 ‘皮’와 『莊子·讓王篇』 “冬日衣皮毛。”의 ‘皮’는 짐승의 ‘가죽’을 뜻한다. 추상적인 개념으로도 확대되었다. 『史記·酈生傳』 “足下以目皮相, 恐失天下士。”의 ‘皮’는 사물의 ‘겉’, ‘피상’이라는 의미이다. 본질에서 나누어진 것이라는 의미로 ‘皮’는 나누다는 뜻이 있다.

9) 본고의 서술 형식 중 일부본은 본고를 세심하게 심사해주신 심사위원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본문에 적용한 것이다. 단 일부는 적용하자니 편폭이 너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기존대로 서술하였다. 그 밖에도 본고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 片

① 上古音: 滂紐元部

② 字源

『說文』: “나무를 나눈 것이다. 반과 목의 의미를 따른다. 편에 속하는 글자는 모두 편(片)의 의미를 따른다.(判木也。从半木。凡片之屬皆从片。)”

『集韻』: “반절은 필견절이다.(匹見切。)”

『廣韻』: “나무를 쪼갠 것이다.(析木也。)”

『玉篇』: “반이다, 나눈 것이다. 잘라 놓은 것이다.(半也, 判也, 開坼也。)”

『論語』: “편린의 말만 듣고도 송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가 유일할 것이다.(片言可以折獄者, 其由也與。)”

『增韻』: “외씨이다.(癡也。)”

‘片’는 『說文』 “判木也”와 『玉篇』 “半也, 判也, 開坼也。”의 해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무를 쪼개다’, ‘반으로 하다’ 등의 의미로 ‘分’의 ‘나누다’와 통한다. 『論語』 “片言可以折獄者, 其由也與。”의 ‘片’은 전체가 아닌 나누어진 ‘조각’을 말한다.

(3) 半

① 上古音: 幫紐元部

② 字源

『說文』: “사물의 가운데를 나눈 것이다. 팔과 우의 의미를 따른다. 우는 사물 중에서 큰 것이다. 나눌 수 있다. 무릇 반을 가지고 있는 글자들은 모두 반의 의미를 따른다.(物中分也。从八从牛。牛爲物大, 可以分也。凡半之屬皆从半。)”

『集韻』: “반절은 박만절이다.(博漫切)”

『易·繫辭』: “지혜로운 자가 그 단사(象辭)를 보면, 그 생각이 반을 지나리라(知者觀其象辭, 則思過半矣)”

『禮·學記』: “좋지 않게 배우는 방법이란, 스승이 부지런해도 이룸에는 절반밖에 이르지 못한다.(不善學者, 師勤而功半)”

『韓非子·內儲篇』: “의심스럽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의심스러운 것이어서 그 일이 좋다고 생각하는 자가 반수이며, 그 일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가 그 절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疑也者, 誠疑, 以爲可者半, 不可者半。)”

‘半’은 『說文』 “物中分也。从八从牛。牛爲物大，可以分也。凡半之屬皆从半。”라고 설명했듯이 사물의 가운데를 나눈 것을 말한다. 『禮·學記』 “不善學者，師勤而功半”의 ‘半’이 ‘절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4) 扒

① 上古音: 幫紐月部

② 字源

『集韻』: “반절은 포괴절이다. 음은 배이고 뽑는다는 의미이다. 뽑는다는 것이다. 포발절이다. 음은 팔이다. 깨뜨리다는 의미이다.(布怪切, 音拜. 拔也. 布拔切, 音八. 破也.)”

『集韻』: “반절은 필별절이다. 독음은 분별의 별과 같이 읽는다. 친다는 것이다. 나누어 분해한다는 것이다.(筆別切, 讀若分別之別. 擘也, 剖分也.)”

『史記·封禪書』: “흙을 파헤치다가 정을 발견하게 되었다.(捨視得鼎.)”

‘扒’는 『集韻』 “布怪切, 音拜. 拔也. 布拔切, 音八. 破也.”와 “筆別切, 讀若分別之別. 擘也, 剖分也.”와 같은 설명을 근거로 보면, 음을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布拔切와 筆別切은 모두 고대음에서 같은 聲母, 같은 韻母인 幫紐月部에 속하는 쌍성첩운이기 때문이다. 의미는 모두 ‘나누다’와 통한다.

2) 다르다.

(5) 八

① 上古音: 幫紐月部

② 字源

『說文』: “구별하여 서로 나누어져 있는 모양이다. 八의 자형이 있는 글자들은 모두 八의 의미를 따른다.(別也. 象分別相背之形. 凡八之屬皆从八.)”

『集韻』: “반절은 포발절이다. 음은 팔이다. (布拔切, 音捌)”

『玉篇』: “숫자이다.(數也)”

‘八’은 『說文』 “別也。象分別相背之形。凡八之屬皆从八。”에 보이듯이 서로 구별하여 나누어져 있는 모양으로 ‘다르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글자들은 전부 ‘分’字의 本義와 서로 밀접하게 의미가 통한다. 이들의 상고음을 알아보면,<sup>10)</sup> ‘皮’는 並紐歌部, ‘片’은 滂紐元部, ‘半’은 幫紐元部, ‘扒’는 幫紐月部, ‘八’은 幫紐月部이다. 並紐, 滂紐, 幫紐는 唇音으로 隣紐이다. 聲母가 모두 서로 같거나 가까운 음이다. 韻母는 歌部和 元部가 對轉이고, 歌部和 月部가 對轉이고, 月部和 元部가 對轉이다. 그러므로 歌部, 元部, 月部는 전부 對轉이 되므로 韻母 역시 음이 서로 같거나 가깝다.<sup>11)</sup>

## 2. 引伸義

### 1) 分別하다.

#### (1) 別

① 上古音: 並紐月部

② 字源

『集韻』: “반절은 필별절이다(筆別切。)”

『說文』: “분해이다.(分解也。)”

『玉篇』: “분별이다.(分別也。)”

『禮·曲禮』: “날과 달로 써 임금에게 고하고, 그 특별한 예를(결혼을) 두텁게 한다.(日月以告君, 以厚其別也。)”

『爾雅·釋山』: “작은 산이 큰 산에서 갈라져 나왔는데, 서로 연결되지 않아서 이름을 선이라고 하였다.(小山別大山, 鮮。)”

『淮南子·齊俗訓』: “요리사가 자르고 갈라 분별하여 놓는 것과 같다.(宰庖之切割分別也。)”

10)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大學出版社, 1986; 李珍華, 『漢字古今音表』, 中華書局出版的圖書, 1999 참고.

11) 聲紐와 韻母의 近音 여부는 王力的 『同源字典』, pp.12-20 참고.

‘別’은 『說文』 “分解也。”와 『玉篇』 “分別也。”에도 있듯이 ‘분해하다’, ‘분별하다’의 의미가 있다. 『爾雅·釋山』 “小山別大山，鮮”의 ‘別’은 나누어져 있다는 뜻이다. 『淮南子·齊俗訓』 “宰庖之切割分別也。”의 ‘別’은 ‘분별하다’의 뜻이다. 『禮·曲禮』 “日月以告君，以厚其別也”의 ‘別’은 다른 것과 다르다는 뜻이다. ‘別’은 ‘分’의 本義인 ‘다르다’라는 의미도 있으면서 동시에 引伸義인 ‘분별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本義에서 引伸義로 확장되어 가는 단계의 글자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引伸義인 ‘분별하다’로 분류하였다.

## (2) 采

① 上古音: 並紐元部

② 字源

『唐韻』: “반절은 포현절이고 변의 본자이다.(蒲莧切。辨本字。)”

『說文』: “변별한다는 것이다. 모양이 짐승의 발자국이 나누어진 모양이다.(辨別也。象獸指爪分別也。)”

『六書正譌』: “본래는 짐승의 발자국인데, 가차하여 변별이라는 글자가 되었다. 심, 석, 실, 변 같은 류가 이 의미를 따른다.(本獸指爪，借爲別辨字。凡審、釋、悉、番之類從此。)”

‘采’은 『說文』 “辨別也。象獸指爪分別也。”라고 설명하였듯이 ‘나누어진 모양’, ‘분별하다’의 의미가 있다.

## (3) 辨

① 上古音: 並紐元部

② 字源

『正韻』: “반절은 비현절이고 음은 변이다(備莧切，音辯。)”

『說文』: “판단한다.(判也。)”

『廣韻』: “구별한다.(別也。)”

『易·乾卦』: “물어서 분별한다(問以辨之。)”

『禮·學記』: “경서를 떠나서도 사람의 본성을 궁구하였다.(離經辨志。)”

『周禮·天官』: “대제를 보좌하는 관리들의 다스림을 평가한다. 그 중에 여섯 번째가 ‘청렴하고 시비를 명백하게 판단한다.’는 의미이다.(弊羣吏之治, 六曰廉辨.)”

‘辨’은 『說文』 “判也.”, 『廣韻』 “別也.”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판단하다, 분별하다’는 뜻이 있다. 『禮·學記』 “離經辨志.”의 ‘辨’에 대하여 『註』에서 “변이란 살펴 물어서 그 정함을 얻는 것이다(辨, 謂考問得其定也.)”라고 하였다. 『周禮·天官』 “弊羣吏之治, 六曰廉辨.”, 『易·乾卦』 “問以辨之.”의 ‘辨’이 모두 ‘살펴 물어서 분별한다는 뜻이다.’

## 2) 빛나다

### (4) 彬

① 上古音: 幫紐文部

② 字源

『集韻』: “반절은 비건절이다. 음은 빈이다(悲巾切, 音邇).”

『說文』: “문과 성품을 다 갖추었다.(文質備也.)”

『廣韻』: “꾸밈과 바탕은 반씩 섞인 모양이다(文質雜半.)”

『論語』: “바탕과 꾸밈이 잘 어울리다.(文質彬彬.)”

『類篇』: “반절은 포환절이다. 음은 반이다. 문채가 밝은 모양이다.(逋還切, 音班. 采明也.)”

‘彬’은 분명하고 명확하여 ‘빛이 나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추상적인 의미의 빛나는 것을 뜻한다. 『說文』 “文質備也.”, 『類篇』 “逋還切, 音班. 采明也.”라고 설명하는 것이 모두 ‘문채가 밝은 모양’으로 해석하고 있다. 『論語』 “文質彬彬.”의 ‘彬’이 추상적인 의미로, 문채와 바탕이 어울려서 ‘빛이 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5) 斐

① 上古音: 滂紐微部

② 字源

『集韻』: “반절은 비미절이다. 음은 비이다.(妃尾切, 音非。)”

『說文』: “분별이 있는 문채이다. 역경에 이르기를 ‘군자가 표범과 같이 변하면, 그 문채가 분명하다’라고 하였다.(分別文也。易曰：君子豹變，其文斐也。)”

『詩·小雅』: “작디작은 문채를 여럿 모아서, 아름다운 자개 무늬 비단 이루네.(斐兮斐兮，成是貝錦。)”

‘斐’는 ‘彬’와 의미상 서로 통하는 글자이다. 『說文』 “分別文也。易曰：君子豹變，其文斐也。”에서 ‘斐’는 군자의 문채 나는 모양이라고 설명하였다. 『詩·小雅』 “斐兮斐兮，成是貝錦。”의 ‘斐’도 『傳』에는 “처비는 문채가 서로 뒤섞여 있는 것이다.(斐斐，文章相錯也。)”라고 하여 ‘문채가 빛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6) 椹

① 上古音: 幫紐歌部

② 字源

『集韻』: “반절은 보미절이고 음은 피이다.(補靡切, 音彼。)”

『說文』: “삼나무이다(榘也。)”

『爾雅·釋木』: “피는 점이다.(椹，粘。); 『本草別錄』: “비실은 일명 피자라고도 한다.(榘實一名椹子。)”

‘椹’를 설명한 『爾雅·釋木』 “椹，粘。”에 대하여 『疏』에서는 “피는 일명 빛이 날 점이라고도 한다(椹一名粘。)”라고 하여 빛이 나는 나무라고 말하였다. 『本草別錄』 “榘實一名椹子。”와 같이 약재로 사용되는 榘實을 椹子라고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나무 이름 글자로 사용된 것이다.

### 3) 내뿜다, 불태우다

#### (7) 焚

① 上古音: 並紐文部

② 字源

『玉篇』: “불태우다.(燒也。)”

『說文』: “본래는 불 뿜 분이라고 한다.(本作焚。)”

『集韻』: “혹은 불사를 분, 불사를 분이라고도 한다.(或作爨燻。)”

『集韻』: “불로 사물을 불사를 것이다.(火灼物也。)”

『集韻』: “반절음이 방문절이고 음이 분이다.(方問切, 音奮。)”

『書·胤征』: “옥과 돌이 함께 불에 훼손되다.(玉石俱焚。)”

『易·離卦』: “불사르다.(焚如。)”

『春秋·桓七年』: “함구 땅을 불사르다.(焚咸丘。)”

『禮·月令』: “중춘에는 산림을 불사르지 마라.(仲春毋焚山林。)”

‘焚’은 ‘빛나다’와 의미가 통한다. 빛나는 것은 강하여 내뿜으면 불이 나게 된다. 『玉篇』 “燒也”, 『說文』 “本作焚”, 『集韻』 “或作爨燻”라고 설명하였다. ‘불태우다’라고 하는 뜻이다. 『書·胤征』 “玉石俱焚”, 『春秋·桓七年』 “焚咸丘”, 『禮·月令』 “仲春毋焚山林” 의 ‘焚’이 ‘불태우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8) 爨

① 上古音: 並紐元部

② 字源

『集韻』: “반절은 부원절이고 음은 번이다.(符袁切, 音煩。)”

『說文』: “불사르다.(爨也。)”

『玉篇』: “불사르다.(燒也。)”

『廣韻』: “고기를 굽다.(炙也。)”

『詩·小雅』: “구운 고기, 지진 고기.(或爨或炙。)”

『大雅』: “고기를 쪼어 구워서(載爨載烈。)”

『左傳·襄二十二年』: “제사드리는 것을 도왔다.(與執爨焉。)”

『釋文』: “번은 燔라고 하기도 하며, 제사 고기를 말한다.(燔, 又作燔. 祭肉也.); 『孟子』: “제사고기를 나누어주지 않자(燔肉不至.)”

‘燔’은 『說文』 “燒也.”, 『玉篇』 “燒也.”, 『廣韻』 “炙也.”라고 하여 ‘불태우다’, ‘고기를 굽는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詩·小雅』 “或燔或炙.”에 대한 『箋』을 보면, “번은 구운 고기이고, 자는 구운 간이다.(燔, 燔肉也. 炙, 炙肝也.)”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集韻』에 보면, “번은 옛날에 번이라고 하였다.(焚, 古作燔.)”라고 하여 ‘焚’과 ‘燔’이 모두 불태우다는 의미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9) 噴

① 上古音: 滂紐文部

② 字源

『說文』: “꾸짖다(叱也)”

『玉篇』: “코를 벌름거리다(鼓鼻也)”

『廣韻』: “숨을 토해내다(吐氣)”

『集韻』: “반절은 방문절이다(芳問切, 音忿. 吹聲)”

『戰國策』: “고개를 숙이고는 한숨을 토해내고, 머리를 들고는 소리 내어 울었다(俛而噴, 仰而鳴)”

『莊子·秋水篇』: “뿜어내어 큰 것은 진주 같고, 작은 것은 안개와 같으며 잡다하게 섞여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噴則大者如珠, 小者如霧, 雜而下者, 不可勝數也)”

『韓詩外傳』: “말을 빨리 뿜어내고 입에서는 뜨거운 침이 나오고 눈은 빨갱다.(疾言噴噴, 口沸目赤)”

‘噴’은 『說文』 “叱也”, 『玉篇』 “鼓鼻也”, 『廣韻』 “吐氣”라고 하여 사람이 속에 불이 나서 화내고, 코를 벌름거리고 숨을 토해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戰國策』 “俛而噴, 仰而鳴”, 『韓詩外傳』 “疾言噴噴, 口沸目赤”의 ‘噴’이 ‘토해내고 뿜어내는 것’을 뜻한다.

## (10) 燻

① 上古音: 滂紐文部

② 字源

『王充·論衡』: “몸에 맞으면 피부가 불살라진다(中身則皮膚灼燻)”

『玉篇』: “본래는 焚자이다.(本作焚)”

『集韻』: “반절은 부분절이다(符分切, 音汾)”

‘燻’은 『玉篇』 “本作焚”라고 설명하고 있듯이 ‘焚’자와 서로 통하며 ‘불사르다’라는 의미이다. 『王充·論衡』 “中身則皮膚灼燻”의 ‘燻’이 ‘불사르다’라는 뜻이다.

위의 글자들의 상고음을 살펴보겠다. ‘別’은 並紐月部, ‘采’은 並紐元部, ‘辨’은 並紐元部, ‘彬’은 幫紐文部, ‘斐’은 滂紐微部, ‘椈’은 幫紐歌部, ‘焚’은 並紐文部, ‘燻’은 並紐元部, ‘噴’은 滂紐文部, ‘燻’은 滂紐文部이다. 이들의 聲母와 韻母관계를 살펴보겠다. 並紐, 幫紐, 滂紐는 모두 唇音으로 발음부위가 같은 旁紐이다. 韻母를 보면, 微部와 文部가 對轉이 된다. 文部과 元部는 旁轉이 된다. 月部과 元部는 對轉이 된다. 이들의 上古音은 또한 모두 같거나 가깝다.

## 3. 反訓義

‘景’의 本義는 ‘光’이면서, 그 反訓義인 ‘陰影’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광명이 있으면 그늘이 있고, 광명이 없으면 음영도 없다는 사고가 반영된 글자이다. 그 후 ‘影’字가 파생되어 나왔다. 즉 그림자 ‘影’과 빛 ‘景’은 同源字이다. ‘分’자의 同源字에도 이러한 글자가 있다. 이 장에서는 ‘分’字 異聲符 同源字 중에서 ‘分’의 ‘나누다’, ‘작다’라는 의미와 反訓義인 나누지 않고 뒤섞여 있어서 ‘얼룩얼룩 하다’, ‘작지 않고 나누지 않은 ‘크다’, ‘높다’등의 의미가 있는 글자들을 분석하여 보겠다.

1) 얼룩얼룩 하다.

(1) 黼

① 上古音: 幫紐文部

② 字源

『集韻』: “반절은 포한절이다. 黼와 같다. 黼은 색이 문드러져 섞여 있고 깨끗하지 않다. 또 黻이라고도 한다.(逋閑切。與黻同。黼, 爛色不純也。又通作黻。)”

『詩·大雅』: “공류 임금께서 빈 땅에 머무시다.(篤公劉, 于黼斯館。)”

『史記·司馬相如傳』: “반문의 옷을 입다.(被黼文。)”

‘黼’은 『集韻』 “逋閑切。與黻同。黼, 爛色不純也。又通作黻。”라고 설명하였듯이 색이 순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의미이다. 『史記·司馬相如傳』 “被黼文。”에 대하여 『註』에서는 얼룩진 무늬의 옷을 입었다(著斑衣也。)라고 하여, ‘黼’를 얼룩진 무늬로 해석하고 있다.

(2) 彪

① 上古音: 幫紐文部

② 字源

『唐韻』: “반절은 방한절이다. 음은 반으로 호랑이 무늬이다.(方閑切, 音編。虎文也。)”

‘彪’는 『唐韻』 “方閑切, 音編。虎文也。”에서 보듯 ‘호랑이 무늬’라고 하여 단일한 무늬가 아닌 얼룩얼룩한 무늬를 말한다.

(3) 黻

① 上古音: 幫紐元部

② 字源

『晉書·江統傳』: “강통자의 자손 강반은 관직이 상서복야이다.(統子彪官尚書僕射。)”

『類篇』: “혹은 麤라고도 한다(或作麤。)”

『集韻』: “반절은 포한절이고 반란은 색이 얼룩얼룩한 모양이다. 혹은 菴, 翮이라고도 한다.(逋閑切, 編爛, 色不純也。或作菴。亦作翮。)”

‘編’은 『類篇』 “或作麤。”과 『集韻』 “逋閑切, 編爛, 色不純也。或作菴。亦作翮。”의 설명을 보면, 혹은 ‘麤’, ‘菴’, ‘翮’字形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색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는 것을 말한다. 『晉書·江統傳』 “統子彪官尚書僕射。”에서 인명으로 사용된 ‘彪’字 역시 ‘編’와 함께 같은 뜻으로 사용된 글자이다.

## 2) 크다, 높다

### (4) 墳

① 上古音: 並紐文部

② 字源

『集韻』: “반절은 부분절이고 음은 분이다(符分切, 音汾。)”

『說文』: “무덤을 말한다(墓也。)”

『禮·檀弓』: “옛날에 무덤은 봉분이 없었다(古者墓而不墳。)”

‘墳’은 『說文』 “墓也。”라고 하여 ‘무덤’이라고 설명하였다. 『禮·檀弓』 “古者墓而不墳。”의 ‘墳’에 대하여 『註』를 보면, “흙이 높은 것을 분이라고 한다.(土之高者曰墳。)”라고 하여 ‘墳’은 구체적으로 ‘봉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5) 鼗

① 上古音: 並紐文部

② 字源

『集韻』: “반절은 부분절이고, 음은 분이다(符分切, 音汾。)”

『說文』: “큰 북을 말한다(大鼓也。)”

『爾雅·釋樂』: “큰 북을 분이라고 한다(大鼓謂之夔。)”

『周禮·地官』: “북치는 사람이 큰 북을 쳐서 군사에게 용기를 북돋는다(鼓人以夔鼓鼓軍事。)”

『詩·大雅』: “큰 북과 큰 종이 걸려 있네(賁鼓維鏞。)”

‘夔’은 『說文』에서 “大鼓也。”라고 하여 큰 북이라고 하였다. 『爾雅·釋樂』 “大鼓謂之夔。”에 대한 『郭註』를 보면, “북이 길이가 8척이 된다(鼓長八尺。)”라고 하여 ‘夔’이 아주 큰 북임을 설명하고 있다.

‘夗’은 幫紐文部, ‘夙’은 幫紐文部, ‘夙’은 幫紐元部, ‘墳’은 並紐文部, ‘夔’은 並紐文部, 幫紐와 並紐는 唇音으로 발음부위가 같은 旁紐이다. 文部와 元部는 旁轉이다. 이들의音が 같거나 가깝다.

#### 4. 本義, 引伸義 兼 反訓義

##### 1) 나누다, 모이다, 뭉다.

###### (1) 版

① 上古音: 幫紐元部

② 字源

『集韻』: “반절은 보관절이다. 음은 판이다.(補縮切, 音版。)”

『說文』: “판가름하다. 片의 뜻과 反의 소리를 따른다.(判也。从片反聲。)”

『詩·大雅』: “板자를 묶어 이으니(縮版以載。)”

『爾雅·釋器』: “서적의 대판을 엮이라고 한다(大版謂之業。)”

『管子·宙合篇』: “직책에서 물러나와서도 끊임없이 공부를 한다.(修業不息版。)”

『史記·趙世家』: “성이 잠기지 않는 곳이 삼판일 뿐이고(城不浸者三版。)”

『周禮·天官·小宰』: “관부에 여덟 가지 종류의 일을 하는 격식이 있어, 이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마을의 땅과 관련된 송사를 판단할 때, 호적과 지도를 근거로 한다.(八成, 三曰聽閭里以版圖。)”

‘版’은 『說文』 “判也。从片反聲。”을 보면, ‘나누다’와 의미가 서로 상통한다. 『詩·大雅』 “縮版以載。”나 『爾雅·釋器』 “大版謂之業。”에 대한 『註』의 설명인 “築牆版也。”를 보면, ‘모이다, 묶다’라는 의미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版’은 ‘나누다’라는 의미와 함께 반훈의도 가지고 있다.

(2) 牀

① 上古音: 幫紐元部

② 字源

『集韻』: “반절은 비면절이다. 변과 같이 읽는다. 평상을 말한다.(卑眠切, 讀若邊。牀版也。)”

『揚子·方言』: “침상의 상판을 평상이라고도 한다.(牀上版。或曰牀。)”

『說文』: “片的 뜻을 따르고 扁의 소리를 따른다.(從片, 扁聲。)”

‘牀’은 평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 조각을 나누어 놓은 것을 엮어야 된다. 나무 조각을 말하기도 하고 나무조각을 모아서 만든 평상을 말하기도 한다. 『集韻』 “卑眠切, 讀若邊。牀版也。”, 『揚子·方言』 “牀上版。或曰牀。”이라고 하여 평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扁

① 上古音: 滂紐元部

② 字源

『說文』: “관청을 말한다. 호와 책의 의미를 따른다. 호책이라는 것은 관청 문 글자를 말한다.(署也。从戶, 冊。戶冊者, 署門戶之文也。)”

『後漢·東夷傳』: “진한에서는 아이를 놓으면, 그 머리를 납작하게 하려고 돌로 눌러 놓는다.(辰韓生兒, 欲其頭扁, 押之以石。)”

『詩·小雅』: “낮은 이 돌은 밟는 이도 낮아진다.(有扁斯石, 履之卑兮。)”

『集韻·銑韻』: “편은 둥글지 않은 모양이다.(扁, 不圓貌。)”

『集韻·先韻』: “편의 반절은 포면절이고, 둥근 모양이다.(扁, 蒲眠切, 圓貌。)”

‘扁’은 『说文』에는 “署也。从戶、冊。戶冊者，署門戶之文也。”라고 하여 관청문의 글자라고 설명하였다. 『集韻』을 보면, “不圓也”와 “圓也”라고 해석하여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누다’는 ‘분별하다’, ‘한쪽’이라는 의미와 통하는데 이와 반대로 반훈의는 ‘모두’, ‘함께’, ‘둥글다’라는 의미가 있다. ‘圓’과 ‘圓’은 둥글다는 의미에서 서로 통한다. ‘扁’은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4) 并

① 上古音: 幫紐耕部

② 字源

『说文』: “두 개의 立의 의미를 따른다.(从二立。)”

『仪礼·乡射礼』: “병행하다(並行。)”

‘并’은 ‘아우를 병’자로, 『说文』 “从二立。”의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並’은 주로 조각 난 것들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한다. ‘併’, ‘屏’, ‘駢’ 등이 그러하다.

(5) 部

① 上古音: 並紐侯部

② 字源

『说文』: “천수적부를 말한다. 邑의 의미를 따르고 音의 소리를 따른다.(天水狄部。从邑音聲。)”

『集韻』: “부는 분이다, 총이다.(部, 分也, 總也。)”

『前漢·地理志』: “영역을 13부(部, 州)로 나누고 각 주에 자사(刺史)를 두었다.(凡十三部置刺史。)”

『後漢·宗室傳』: “주천도부(柱天都部)”

『廣韻』: “관청이다. 육경이 있는 곳을 육부라고 한다.(署也, 六卿之署曰六部。)”

『荀子·王霸篇』: “명성이 천지공간에 분포되어 간다.(名聲部發於天地之間。)”

『後漢書·宗室傳』: “자칭하여 주천도부라고 하였다.(自稱柱天都部。)”

‘部’은 『集韻』 “部, 分也, 總也”를 보면, 나누다는 의미도 있으면서 ‘총괄하여 거느리다’라는 의미도 있음을 알 수 있다.

(6) 諛

① 上古音: 幫紐歌部

② 字源

『集韻』: “반절은 피의절이다.(彼義切)”

『說文』: “변론이다.(辯論也。)”

『廣雅』: “지혜이다.(慧也。)”

『玉篇』: “아첨이다.(佞諂也。)”

『廣韻』: “치우쳐 따져 묻는 것이다(諛諛也。)”

『詩·周南·卷耳序』: “안에서는 어진 이를 등용하려는 뜻이 있고 험하고 편벽되며 사사로이 청탁하려는 마음이 없다.(內有進賢之志, 而無險諛私謁之心。)”

『釋文』: “피는 망령되게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다.(諛, 妄加人以罪也。)”

『孟子』: “변명하는 말을 들으면 그가 무엇에 궁색한지 알 수 있다.(諛辭知其所蔽。)”

『六書故』: “피와 통한다.(與陂通。)”

『荀子·成相篇』: “간악한 자들은 법도도 없이 음험하게 못된 것을 해(讒人罔極, 險陂傾側。)”

‘諛’는 『玉篇』 “佞諂也。”, 『廣韻』 “諛諛也。”, 『說文』 “辯論也。” 등의 설명을 보면, ‘아첨하다’, ‘따져 묻다’, ‘변론하다’ 등으로 치우치다는 의미가 있으나, 『廣雅』 “慧也。”를 보면 ‘지혜’라는 의미도 있다. 이와 같이 ‘諛’는 따져 묻고, 한쪽에 치우쳐 분별하여 변론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반훈의인 둥글둥글한 지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諛’자도 인신의와 반훈의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한다.

(7) 班

① 上古音: 幫紐元部

② 字源

『说文』: “서옥을 반으로 나눈 것이다.(分瑞玉。)”

『廣韻』: “포환절(布還切。)”

『書·堯典』: “서를 여러 제후에게 반포한다.(班瑞于羣后。)”

『爾雅·釋言』: “반은 부이다.(班, 賦也。)”

『左傳·襄二十六年』: “자형나무를 깔고 앉아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班荆相與食)”

『博雅』: “반은 질서이다.(班, 秩序也。)”

『左傳·文六年』: “진영은 신분이 천하고 부인으로서의 서열은 아홉째이다.(辰嬴賤班在九人。)”

『集韻』: “순서이다.(次也。)”

『左傳·桓六年』: “이때에 제후들의 대부가 제나라를 지키고 있었으므로, 제나라 사람들은 마초와 양식으로 그들을 먹였다 그것을 나누어줄 때, 노나라로 하여금 순번을 붙여서 나누어 주게 하다.(於是諸侯之大夫戍齊, 齊人饋之餼, 使魯爲其班。)”

『孟子·公孫丑』: “이와 같이 동등합니까?(若是班乎?)”

『國語·晉語』: “수레가 안과 밖으로 두루 왔다 갔다 한다.(車班內外。)”

班은 『爾雅·釋言』 “班, 賦也”라고 하여 ‘주다’는 의미임을 설명하고 있다. 『集韻』에는 “次也”라고 하여, 또 질서라는 의미도 있다. 『書·堯典』 “班瑞于羣后”의 ‘班’은 서옥을 반으로 나눈 것이다. 『左傳·桓六年』 “於是諸侯之大夫戍齊, 齊人饋之餼, 使魯爲其班”의 ‘班’은 ‘순서’, ‘질서’를 말한다. 그러면서 또 ‘班’은 ‘동등하다’는 의미도 있다. 『孟子·公孫丑』 “若是班乎?”에 대한 趙注를 보면, “班, 齊等之貌”이라고 하여 ‘동등하다’로 해석하고 있다. 『國語·晉語』 “車班內外”의 ‘班’에 대한 韋注를 보면, “班, 遍也”라고 하여 ‘두루, 모두’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班’은 ‘나누다’, ‘질서’, ‘순서’라는 의미와 함께 ‘동등하다’, ‘모두’, ‘두루’라는 반훈의도 가지고 있다.

(8) 叉

① 上古音: 初紐歌部

② 字源

『說文』: “손가락을 서로 깎지 낀 모양이다. 우의 의미를 따르고 상형자로 모양은 깎지 낀 모양이다.(手指相錯也。从又, 象叉之形。)”

『集韻』: “반절은 초가절이고 음은 차이다. 손가락을 서로 깎지 낀 것이다.(初加切, 音差。手指相錯。)”

『玉篇』: “손가락을 서로 교차한 것이다.(指相交也。)”

『增韻』: “속칭하여 공수를 차수라고도 한다.(俗呼拱手曰叉手。)”

『柳宗元詩』: “고을에 들어가면 늘 허리를 굽히고, 사람을 만나면 공손히 깎지를 끼네.(入郡腰常折, 逢人手盡叉。)”

‘叉’는 『說文』 “手指相錯也。从又, 象叉之形”와 『玉篇』 “指相交也”에서 보듯이 ‘손가락을 벌려 깎지 낀다’는 의미에 ‘나누다’는 의미와 다시 ‘공손히 모으다’는 의미가 있어서 두 방향의 의미를 모두 가진다.

(9) 衩

① 上古音: 初紐歌部

② 字源

『集韻』: “반절은 초해절이다.(楚懈切。)”

『玉篇』: “옷의 옷섶을 말한다.(衣衩也。)”

『李商隱詩』: “연꽃이 작게 수놓아진 치마 술기.(裙衩芙蓉小。)”

『篇海』: “옷의 옷술기이다.(衣袒也。)”

‘衩’은 『玉篇』 “衣衩也”라고 하여 옷섶을 말한다. 옷섶은 옷의 두 단이 이어지는 곳으로 ‘나누어 갈라지다’의 의미도 있고 ‘모이지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

2) 나누다, 오락가락 하다.

(10) 𪗇

① 上古音: 滂紐微部

② 字源

『集韻』: “반절은 부미절이다. 음은 비이다.(府尾切, 音匪。)”

『說文』: “구별이다. 非의 의미와 已의 소리를 따른다.(別也。从非已聲。)”

『集韻』: “반절은 비미절이다. 음은 비이다. 새 이름이다. 산 울새미를 말한다.(妃尾切, 音斐。鳥名。山臬也。)”

『類篇』: “다르다.(別也。)”

‘𪗇’는 『說文』 “別也。从非已聲。”와 『類篇』 “別也。”에서 ‘나누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글자는 또 새 이름으로 사용되는 글자이다. 이쪽과 저쪽이 나누어져 있는 곳을 새라는 하는 것은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날 짐승이다. 대표적으로 철새도 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새를 말한다.

(11) 番

① 上古音: 並紐元部

② 字源

『說文』: “짐승의 발자국을 일러 번이라고 한다. 采의 의미를 따른다. 田는 발자국 모양이다. 혹은 躡이라고도 한다.(獸足謂之番, 从采, 田象其掌。或作躡。)”

『正韻』: “반절은 부간절이다. 음은 번이다. 자주라는 의미고, 갈마든다는 의미이다.(孚艱切, 音翻。數也, 遞也。)”

『山海經』: “번조산이 있는데, 모래만 많고 초목이 없다.(番條之山, 無草木, 多沙。);”

『史記·伍子胥傳』: “합려가 태자 부차에게 군사를 이끌고 초를 치고 번을 차지하라 하였다.(闔閭使太子夫差將兵伐楚, 取番。)”

『戰國策』: “태갑이 황하를 건너고, 장강을 넘어 번오에 거하면서 한단유역에서 필전을 하고자 한다.(秦甲涉河, 踰漳據番吾, 則兵必戰於邯鄲之下矣。)”

‘番’은 『說文』 “獸足謂之番，从采，田象其掌。或作蹠。”을 보면 ‘짐승 발자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正韻』 “孚艱切，音翻。數也，遞也。”에서는 ‘자주 왔다 갔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문헌에는 주로 지명으로 사용되었다. 짐승 발자국이란 것은 나누어 진 것이다. 지역도 이곳과 저곳이 나누어져 있다. ‘番’은 ‘나누어지다’라는 의미와 함께, ‘왔다 갔다’한다는 의미가 함께 있는 글자이다.

(12) 般

① 上古音: 並紐元部

② 字源

『集韻』: “반절은 포환절이고 班과 같다.(浦還切。班與班同。)”

『爾雅·釋言』: “반은 돌아온다는 의미이다.(般，還也。)”

『前漢·趙充國傳』: “(明主般師罷兵。)”

『賈誼傳』: “이런 지런 허물에 걸렸는가(般紛紛其離此尤兮。)”

『周禮·內饗』: “말의 검은 등 갈기와 알록달록한 무늬의 앞 다리(馬黑脊而般臂騃。)”

『史記·司馬相如傳』: “반반한 문채의 짐승(般般之獸。)”

‘般’은 ‘돌 반’자로, 『集韻』 “浦還切。與班同。”에서는 ‘班’와 같다고 하였다. 『爾雅·釋言』 “般，還也。”에 대한 『疏』를 보면 “般，還反也。”라고 하였다. ‘나누다’, ‘알록달록’, ‘돌아오다’라는 의미가 모두 있다. 알록달록하다는 것은 오락가락하다는 것과 의미가 통한다.

(13) 反

① 上古音: 滂紐元部

② 字源

『說文』: “뒤집는다. 又의 의미를 따르고, 한과 반으로 이루어진 자형이다.(覆也。从又，厂反形。)”

『集韻』: “반절음은 보원절이다.(甫遠切)”

『詩·周頌』: “복록이 거듭 오도다.(福祿來反。)”

『前漢·勝傳』: “사자가 다섯 번이나 되돌아 왔다(使者五反。)”

‘反’은 ‘뒤집다 반’자로, ‘왔다 갔다’ 함을 말한다. 『詩·周頌』 “福祿來反” 에도 보면, 복록이 ‘거듭 오다’라는 의미로 『註』에도 보면, “복록의 음이 반복하여도 싫지 않다(言福祿之來, 反覆不厭也)”라고 해석하였다. 『前漢·勝傳』 “使者五反”의 ‘反’도 거듭 되돌아 왔다는 의미이다.

### 3) 꾸미다, 꾸미지 않다.

#### (14) 賁

① 上古音: 並紐元部

② 字源

『說文』: “꾸미다, 패의 의미와 궤의 독음을 따른다.(飾也。从貝弁聲。)”

『易·賁卦』: “산 아래 火가 있는 것이 분이다.(山下有火, 賁。)”

『書·湯誥』: “찬연함이 초목과 같다.(賁若草木。)”

『集韻』: “반절은 포환절이고 음은 반이다.(浦還切, 音班。)”

『易·賁卦·釋文』: “분은 고대의 반자를 말하고 문장의 모양이다.(賁, 古班字。文章貌。)”

『詩·大雅』: “큰 북과 큰 종 달려있도다.(賁鼓維鏞。)”

『詩·小雅·白駒』: “분연히 내게로 달려온다.(賁然來思。)”

『周易·賁卦』: “분은 색이 하나의 단일한 색이 아니다.(賁, 色不純也。)”

『周易·雜卦』: “분은 무색을 말한다.(賁, 無色也。)”

‘賁’은 『說文』 “飾也。从貝弁聲”라고 하여 ‘장식하여’ 부풀어 오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書·湯誥』 “賁若草木”의 賁도 장식한 것을 말한다. 『易·賁卦·釋文』에도 보면, “賁, 古班字。文章貌”이라고 하였다. 장식한 모양을 『詩·小雅·白駒』에서는 “賁然來思”라고 하여 鄭箋에서, “賁, 黃白色也”이라고 하였고, 『周易·賁卦』에서는 “賁, 色不純也”라고 하였다. 그런데 『周易·雜卦』를 보면 “賁, 無色也”라고 하여 引伸義인 ‘빛나다, 아름답다’는 의미와 통하는 ‘꾸미다’는 의미와는 정반대의 의미인 ‘꾸미지 않다’

는 의미도 함께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글자들의 上古音을 알아보겠다. ‘版’은 幫紐元部, ‘扁’은 幫紐元部, ‘扁’은 滂紐元部, ‘并’은 幫紐耕部, ‘部’은 並紐侯部, ‘波’은 幫紐歌部, ‘班’은 幫紐元部, ‘又’은 初紐歌部, ‘邲’은 滂紐微部, ‘番’은 並紐元部, ‘般’은 並紐元部, ‘反’은 滂紐元部, ‘賁’은 並紐元部이다.

聲母는 舌音과 齒音, 舌音과 脣音이 隣紐가 되며, 正齒音인 初紐와 脣音인 幫紐도 隣紐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初紐가 正齒音이고 溪紐는 舌根音인 牙音으로 모두 舌音에 속한다.<sup>12)</sup> 同類同直行者 혹은 舌齒 同直行者는 準雙聲에 속하므로 같은 舌音에 속하면서 直行者인 初紐와 溪紐는 準雙聲이다. 溪紐와 疑紐는 牙音으로 同類이고 同橫行者이기 때문에 旁紐이다. 鼻音과 鼻音, 鼻音과 邊音은 隣紐라고 했으므로 鼻音인 疑紐와 明紐는 隣紐에 속한다. 明紐와 幫紐는 脣音이며 同橫行者가 되어 旁紐이다. 이렇게 음의 관계를 따지면, 正齒音인 初紐와 脣音인 幫紐도 隣紐가 된다. 幫紐, 並紐, 滂紐는 脣音으로 발음부위가 같은 旁紐이다. 韻母는 文部和 元部는 旁轉, 文部和 耕部는 旁轉, 文部和 歌部는 旁對轉이 된다. 文部和 侯部는 通轉이 되고, 文部和 微部는 對轉이 된다. 그러므로 음이 서로 같거나 가깝다.

물론 고대한어에서 ‘음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둘 사이의 음을 가깝게 볼 수도 있고, 멀게도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확정된 기준이 없고, 어떤 이론이라도 시비가 존재한다.<sup>13)</sup> 본고 논문의 의도 중의 하나는 同源字의 범위에 反訓義 어휘 의미까지 확장하는 것이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近音의 범위도 폭 넓게 적용하였다.

12) 唐作藩, 『音韻學教程』, 北京大學出版社, 1997, p.35.

13) 王寧, 『古代漢語』, 北京大學出版社, 2002, p.155.

#### IV. 결론

同源字는 말의 뿌리가 같아서音が 서로 같거나 가깝고 의미가 서로 통하는 글자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同源字 연구에 本義, 引伸義 뿐만이 아니라, 의미가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는 그 反訓義까지 포함하여 系聯하였다. 清代의 학자인 王念孫은 『爾雅·疏證』에서 “무릇 한 글자가 두 개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서로 뒤집어진 의미가 통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sup>14)</sup>라고 反訓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하였다. 고대 한어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였던 사실이며, 그 예도 다 헤아릴 수 없다.

‘反訓’ 연구를 시작한 것은 東晉의 郭璞이지만, ‘反訓’이라는 이 명칭의 확정은 대략 清代의 학자인 沈洪로 보는데, 그가 지은 『助字辨略』에서 말하기를 “보편적이고 주요한 훈고 수단인 ‘反訓’을 인정하고 활용하여야 한다.”<sup>15)</sup>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줄저 「‘分’字와 ‘分’ 聲符字의 字義의 확장으로 본 反訓義」와 연계하여 反訓義 글자도 적극적으로 同源字 범위에 넣고 ‘分’字와 ‘分’聲符 同源字를 제외한 ‘나누다’를 語根으로 하는 同源字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줄저 「‘分’字와 ‘分’ 聲符字의 字義의 확장으로 본 反訓義」의 연구 결과를 간략히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分’의 本義는 ‘나누다’, ‘다르다’이고, ‘分’의 引伸義는 ‘나누어서 분명하고 명확하다’, ‘다른 것을 분별해 내다’, ‘나누어 주다’, ‘반쪽, 전체의 반’, ‘일부분’, ‘춘분’, ‘경계’, ‘분수’, ‘직분’, ‘몫’, ‘정분’이며, ‘도량형의 단위’로 사용될 때도 있다. ‘分’의 反訓義는 ‘두루, 모두’라는 의미, 모두 ‘만족하다, 기꺼이와 모두 만족하여 기꺼이 따르는 ‘원리, 원칙’이라는 의미, ‘예상하다’ 등의 의미이다.

‘分’字를 聲符로 하는 ‘分’字 同源字의 本義, 引伸義, 反訓義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본의 ‘나누다’, ‘다르다’ 이다. 引伸義는 최대한 비슷한

14) 朱舟, 「試談反訓」, 『天津市經理學院學報』, 2012, p.39.

15) 朱舟, 「試談反訓」, 『天津市經理學院學報』, 2012, p.39.

의미끼리 묶어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갈림길’, ‘경계가 분명하다’, ‘예쁘다’, ‘옷에 수를 놓다’ 등이다. 두 번째는 ‘빛나다’, ‘내뿜다’ 등이다. 세 번째는 ‘기가 성하다’, ‘용솟다’, ‘불이 일어나다’ 등이다. 네 번째는 ‘명령하다’, ‘큰 소리’, ‘꾸짖다’ 등이다. 反訓義 글자는 ‘分’字의 경우, ‘나누다’, ‘경계가 분명하다’라는 의미에서 역방향의 의미인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나누어 있지 않은 ‘아우르다’, ‘뒤섞이다’, ‘모이다’, ‘크다’ 등의 反訓義가 만들어졌다.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아우르다’, ‘거두다’, ‘모이다’ 등이다. 두 번째, ‘섞여 있다’, ‘어지럽다’, ‘느리다’ 등이다. 反訓義를 가진 글자 중에서 本義나 引伸義를 겸하여 가진 글자들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나누다’, ‘어지럽다’ 등이다. 두 번째, ‘나누다’, ‘모이다’, ‘크다’ 등이다. 이상과 같은 글자 분석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전 연구에서 산출된 결과이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한 ‘分’字 聲符를 제외한 ‘나누다’를 語根으로 하는 ‘分’字의 同源字에 대한 그 本義, 引伸義, 反訓義는 다음과 같다. 本義는 역시 ‘나누다’, ‘다르다’ 이다. 引伸義는 ‘구별하다’, ‘빛나다’ ‘내뿜다’, ‘불태우다’이다. 反訓義는 ‘얼룩얼룩하다’, ‘크다’, ‘높다’이다. 反訓義가 本義와 引伸義 겸하여 가진 상황을 보면 ‘나누다’, ‘모이다’, ‘뭉다’ 등의 의미가 함께 하고, ‘나누다’, ‘오락가락하다’ 등이 함께 하며, ‘꾸미다’와 ‘꾸미지 않다’가 함께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本義        | 引伸義  | 反訓義                              |                                 |
|---------|-----------|--|----------------------------------|---------------------------------|
| ‘分’     | 나누다, 다르다. | 분별하다, 나누어주다, 반쪽, 일부분, 경계, 분수, 직분                                   | 모두, 두루, 만족하다, 기꺼이, 원리, 원칙, 예상하다. |                                 |
| ‘分’字 聲符 | 나누다, 다르다. | 갈림길, 경계, 예쁘다, 수놓다, 빛나다, 내뿜다, 기가 성하다, 용솟다, 불 일어나다, 명령하다, 큰 소리, 꾸짖다. | 아우르다.<br>뒤섞이다.<br>모이다.<br>크다.    | 1)나누다, 어지럽다.<br>2)나누다, 모이다, 크다. |

|  |              |                             |                       |  |
|--|--------------|-----------------------------|-----------------------|--|
| ‘分’字<br>聲符<br>이외의<br>‘나누<br>다’<br>語根의<br>同源字 | 나누다.<br>다르다. | 구별하다.<br>빛나다, 내뿜다, 불<br>태우다 | 얼룩얼룩하다.<br>크다.<br>높다. | 1)나누다, 모이<br>다, 묶다.<br>2)나누다, 오락<br>가락하다.<br>3)꾸미다,<br>꾸미지 않다. |
|--|--------------|-----------------------------|-----------------------|--|

이상과 같이 同源字에 대하여 本義, 引伸義, 反訓義를 함께 분석하면 단지 同源字의 공통된 의미만을 系聯했을 때보다 좀 더 많은 글자 정보와 의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글자들의 의미 연결을 좀 더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다. 앞으로 한자의 字形, 字義, 字音を 연구할 때, 同源字 연구에 反訓義를 같이 종합하여 연구한 후 정리하면 同源字의 연구를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의미의 확장 방향도 알 수 있어, 한자의 의미를 폭 넓게 이해할 수 있으며, 문헌 연구의 訓詁 方面에도 훌륭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sup>16)</sup>

16) 본래는 ‘分’字, ‘分’字 聲符 同源字, ‘分’字 이외에 ‘나누다’를 語根으로 하는 同源字 등등의 글자를 모두 한편의 논문에 담고자 하였으나, 편폭이 너무도 방대해져서 부득이 「‘分’字와 ‘分’ 聲符字의 字義의 확장으로 본 反訓義」와 「‘나누다’를 語根으로 한 同源字 考」로 나누어서 논문을 작성하였다.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혹시 연구 내용 중 일부가 인용이 될 수도 있으나 연구 대상의 글자는 중복되지 않음을 밝혀둔다.

<參考 文獻>

- 郭錫良,『漢字古音手冊』,北京大學出版社,1986.
- 唐作藩,『音韻學教程』,北京大學出版社,1997.
- 徐世榮,『古漢語反訓集釋』,安徽教育出版社,1985.
- 王繼洪,「反訓淺析」,上海大學學報(社會科學版),1990.
- 王 寧,『訓詁學原理』,中國國際廣播出版社,1996.
- 王 寧,『古代漢語』,北京出版社,2002.
- 王 力,『同源字典』,商務印書館,1997.
- 劉鈞傑,『同源字典補』,商務印書館,1999.
- 劉鈞傑,『同源字典再補』,語文出版社,1999.
- 李珍華,『漢字古今音表』,中華書局出版的圖書 1999.
- 林達青,「動作類反訓詞的意象模式」,淮南師範學院學報,2001.

## Abstract

*A study of the same root letters with the meaning of ‘divide’  
/ Lee Keoung-suk\**

We can consider the shape in which a letter is interpreted in two meanings. The meanings of expression are contradictory, but the meanings of reality are mutually connected. I acknowledge the fact that they exist universally in ancient Chinese. The example is too many to count. The opposite meaning is connected to each other. It should be recognized and utilized as a method of major interpretation.

The original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分’ is ‘to share’ and ‘to be different.’ The extended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分’ is ‘divided and clear and clear’, ‘distinguish another’, ‘divide’, ‘half’, ‘partial’, ‘equinox’, ‘Job’, ‘share’, ‘regular’, ‘metric type’, etc.

The opposit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分’ is the meaning of ‘everyone’, ‘satisfying’, ‘willing’, ‘principle’, ‘principle’, ‘expect’, etc.

The extended meaning of the same root letters of the Chinese character ‘分’ and the same sound part are roughly classified into four kinds. The opposite meaning is classified into two types.

There are letters with opposite meanings and different meanings. There are two major categories. We also analyzed the same root letters that have a different sound from the Chinese character ‘分’. Analysis of these letters can help interpret the literature. We can learn vocabulary more deeply and broadly, And we can extend the breadth of thought.

**【Key words】** divide, the common root, the original meaning, the extended meaning, the opposite meaning.

투고일 : 5월 20일, 심사완료일 : 6월 5일, 게재확정일 : 6월 7일

\* Lecturer of Kongju Univ. / jing20000219@hanmail.net